

F-letters 금융뉴스

Daily #1705

주요 금융뉴스

2017. 09. 13

은행/보험 이병건
369 - 3381
pyrrhon72@dongbuhappy.com

□은행

8월 은행 신용대출 185조원 한달새 3.4조원 ↑ 〈파이낸셜뉴스〉

가계대출 잔액은 744.2조억원으로 한 달새 6.5조원 증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57.7조원으로 7월 말보다 3.1조원 증가. 증가 규모 7월대비 1.7조원 축소

총량규제로 성장날개 꺾인 중금리대출 〈매일경제〉

저축은행 중금리 신용대출 신규 취급액, 2분기 2,660억원으로 1분기 2,950억원 대비 감소

금호타이어 빗 절반 이상 1.9조 연내 만기 돌아온다 〈뉴스원〉

전체 차입금의 3분의 2(66%)인 2.3조원이 KDB산업·우리·KB국민은행 등 주주협의회 채권

경영정상화 자구 계획으로 2천억원 규모 제3차 배정 유상증자, 중국 공장 매각 등을 제시했으나 채권단은 수정 요구

현대차 중국 공장 기동 중단·재개 반복에 속 타는 은행들 〈조선비즈〉

IBK기업은행, 최근 현대차 협력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주채권은행인 KEB하나은행도 현대차의 실적 악화를 예의주시

회장인선에 또 제동 건 KB노조 〈매일경제〉

"사측, 연임실문 조작" 주장 "트집잡기 너무 심해" 지적

신한·우리·농협은행, "가상화폐 거래 확대" 〈한국경제〉

국민·산업은행이 뺏겼. 코인원 등 가상화폐 거래소와의 거래를 중단한 것과 상반된 전략

편의점 '캐시백' 서비스가 뭐야. 하루 이용 달랑 1건 〈이데일리〉

시행 9개월째 36곳만 도입. 복잡한 절차, 홍보 부족 외면

□ 증권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 증권사 경쟁 점입기경 <뉴스원>

NH증권 수수료 평생 무료 들고 나오자 KB증권·미래에셋대우 등 무료 이벤트 연장

KTB증권, 지난 9.0~12.0%이던 신용융자 이자율을 7월1일부터 5.0~9.0%로 인하,

신한금융투자는 기존 7.5~10.5%에서 6.5~8.0%로 인하

■ Compliance Notice

- 자료 발간일 현재 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는 해당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 발간일 현재 지난 1년간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한 종목들의 IPO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 발간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자료 발간일 현재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법인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내용은 기관투자자 등에게 지난 6개월간 E-mail을 통해 사전 제공된 바 없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1년간 투자 의견 비율 (2017-06-30 기준) - 매수(67.1%) 중립(32.9%) 매도(0.0%)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투자 의견은 향후 12개월간 당사 KOSPI 목표 대비 초과 상승률 기준임 ▪ Buy: 초과 상승률 10%p 이상 ▪ Hold: 초과 상승률 -10~10%p ▪ Underperform: 초과 상승률 -10%p 미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 투자 의견은 향후 12개월간 당사 KOSPI 목표 대비 초과 상승률 기준임 ▪ Overweight: 초과 상승률 10%p 이상 ▪ Neutral: 초과 상승률 -10~10%p ▪ Underweight: 초과 상승률 -10%p 미만 |
|--|---|